

화순군 “향토음식 전문가 모집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역량 강화 교육 교육생 20명 모집 총 6회 걸쳐 이론·실습 병행

화순군이 향토음식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올바른 식문화 형성을 선도할 향토음식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

다. 음식과 관련한 연구회에서 활동 중이거나 향토음식 강의 경력자 등 2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6회 시행되고, 음식 관련 연구회 활동 중이거나 향토음식 강의 경력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 세부 교육 내용은 ▲음식 강의 촬영·편집 기법에 관한 이론·실습 ▲레시피 표준화 방법 ▲교안 작성법 등 강의기법 ▲음식개발 키워드와 사례교육 등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오며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교육 수료생들은 화순 향

토음식 학교에서 강사 활동 등을 통해 향토음식 전수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토음식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토음식 활성화를 이끌 핵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문의와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379-5432)으로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빗가람 공원텃밭 개장

드라이브스루 개장식 행사 개최...4개소 265구획 분양

“3평 남짓한 텃밭이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 너무 즐겁네요. 농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 수확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원텃밭을 분양 받은 도시농부들이 지난 주말 첫 밭을 갈았다.

14일 나주시는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빛가람 공원텃밭'을 지난 10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빛가람 공원텃밭(4개소)은 일반시민 119구획, 이전기관 종사자 136구획, 노인일자리 공동체 10구획 등 총 265구획이 분양됐다.

특히 한국전력 본사 건물 뒤 유전제 공원에 위치한 4텃밭(빛가람동 22-1)을 초보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목재 텃밭으로 전환해 눈길을 끈다.

공원텃밭 개장식은 도시농업인의 날(4월 11일)에 맞춰 지난 10일 제1텃밭에서 개최됐다.

개장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텃

밭배제 가이드북, 소농기구(호미·모종삽) 등이 담긴 키트와 채소 모종 꾸러미를 차량에 전달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단체성 행사를 간소화하되 5월 초 밭작물 모종 나눔을 도시텃밭 클린 캠페인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 '밴드'(band)를 텃밭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해 초보 도시농부들의 성공적인 텃밭 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부 여가 활동이 위축되면서 공원텃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며 “올해 농식품부로부터 확보한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예산을 투입해 테마와 주제가 있는 다채로운 텃밭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원텃밭 관련 문의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061-339-7451~3)으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4년 간 70억 투입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 본격화

곡성군이 농림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지난 4월 9일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2019년 곡성군은 농림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70억 원(국비 49억, 지방비 21억)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업비로 곡성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민간 참여 대표팀(액션그룹) 미팅, 생산·가공·체험마을 분야 설문조사, 중계단 자문회의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힘을 쏟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곡성군은 친환경이라는 지역 강점을 살려 농산물을 활용한 디톡스 특화상품 개발, 유통채널 확대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해독과 치유를 콘셉트로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를 열어 생산자, 액션그룹, 추진단 등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체험활동가 등 청년사업가(활동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디톡스 테라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신활력 플러스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진행한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 대전면 의용소방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병풍산 등산객 대상 계도 활동·자연정화 활동 앞장



담양군 대전면 의용소방대(대장 이정현·천양례)가 지난 11일 대전면 병풍산 주차장에서 병풍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등산객이 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져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림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 진행했다.

이날 대전면 의용소방대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입산 시 안전수칙 안내 등 산불예방을 계도하는 활동과 함께 한재골 유원지 및 병풍산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정화 활동에도 앞장섰다.

이정현 대장은 “이번 캠페인이 등산객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산불 예방 홍보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성현 대전면장은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는 홍보 활동이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

주민생활불편 해소·방법취약지 안전 강화

구례군은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방법취약지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연말부터 금년 3월말까지 군민들로부터 보안등 설치가 건의된 100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례군 가로등(보안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70개소를 선정했다. 설치비 약 1억원을 들여 보안등 설치사업

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설하는 70개소는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등 평소 야간 통행 불편에 따른 주민 요구가 있던 곳으로 사고 예방과 주민이동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토지면 김 모 이장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해 야간 통행 시 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 안전한 마을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구례군은 약 6천여 개의 가로등을 관리중이며,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 2015년도부터 노후된 가로등 설비를 고효율 LED조명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보안등 신설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실내수영장 여성 사용자 감면

장성군이 장성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사용자료를 감면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16일부터 만 13세 이상 ~ 만 55세 이하 여성 회원은 월 사용자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여성 회원의 경우 매월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남성 이용자와 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감면사유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수영장 내부 체력단련실 사용자료 인하, ▲보훈 관련 대상자 사용자료 50% 감면, ▲장성군 체육회 주관 행사에 대해 80% 감면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